

‘상상을 현실로, K-농업기술 세계로’

농진청, 24~27일 ‘2020 농업기술박람회’ 온라인으로 열어

농진청(청장 허태웅)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상상을 현실로, K-농업기술 세계로’라는 주제로 ‘2020 농업기술박람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올해로 4회째 열리는 박람회는 최근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농업기술의 혁신성과를 농업인,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www.농업기술박람회.kr, 농진청 유튜브 채널)으로 처음 추진된다.

올해 박람회 개최 방식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전시회 공간에 설치하려던 실물과 모형, 화관을 모두 영상물로 제작해 3차원 가상 전시관에 선보일 예정이다. 총 6개의 주요 전시 내용을 가상 전시관에 소개하고, 관람자가 관람 동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농업의 혁신 기술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를 제공한다. 3차원 가상전시관에서는 농업의 시작인 ‘유전자원’, ‘품질’, ‘BT기술’, 최신기술을 집약한 ‘스마트농업’, ‘안전농업’, 사막, 남극 등 극한 환경을 극복한 K-농업기술 등을 소개한다.

최신 농업기술과 정보를 일리는 실시간 방송을 통해 농업인·국민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총 8부로 진행되는 ‘농업기술 토크콘서트’는 3차원 가상전시관에 전시된 내용에 대해 기술개발 연구자와 사회자가 대화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또한, 누에고치 공예, DNA분리·관찰 등 8종류의 ‘농업생명과학체험교실’을 운영해 신청자와 전문 강사가 실시간 방송을 통해 미리 배송된 체험키트를 가지고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반려식물을 키우는 참가자는 ‘온라인 식물병원’을 통해 반려식물의 문제점을 전문가의 도움으로 진단하고 처방받을 수 있다.

아울러 농업·농촌의 가치를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대행사와 이벤트를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농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마련된 ‘도전! 대한민국 농업골든벨’에서는 농업에 대한 과학 관련 상식 퀴즈대회를 열고, 가장 빨리 문제를 맞춘 참가자에게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힘내라! 농업·농촌 UCC챌린지’, 특허기술장터, 박람회 포스터 공유 등 흥미 있는 SNS 이벤트가 풍성하다.

2020 농업기술박람회는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입장료나 체험비는 모두 무료다.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는 농업기술박람회 누리집(www.농업기술박람회.kr)이나 운영사무국(☎063-238-0058)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진청허태웅 청장 농진청장은 “2020 농업기술박람회는 농업과

기술 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성장산업으로서의 농업·농촌의 잠재력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된 대한

전시회 공간 설치하려던 실물·모형 등 영상물로 유전자원·품질·BT기술 스마트농업 등 소개 토크콘서트·농생명 과학체험교실 등도 운영

“민국 최고의 농업기술 대추전이다”며, “최신 농업기술과 정보를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기회이자, 농업의 새로운 가치와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 비전을 일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조달청, 추석 맞아 민생 지원대책 시행

조달청은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자금 지원과 각종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등 다양한 민생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이주현)이 지난 18일 밝혔다.

조달청은 장기간의 연휴 기간 동안 생산시설 가동 중단 등에 따른 조달기업의 납품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각종 계약대금을 명절 전 최대한 지급되도록 계약대금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조치한다. 또한, 조달계약의 신속한 계약을 통해 계약대금의 최대 80%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선금·네트워크론을 명절 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조달기업의 명절 자금난 완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조달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납품기한 조정하는데, 명절 직후(10월 5~7일) 납기가 도래하는 계약·납품건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 납기를 10월 13일 이후로 연장할 계획이다.

새민금개발청장, 항공박물관 방문

양창모 새민금개발청장은 지난 18일 서울 국립항공박물관을 방문해 최정호 관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양 청장은 “개관한 국립항공박물관의 전시·운영 방법을 배워 새민금에 건립 중인 국립새민금항공박물관을 다시 찾고 싶은 박물관으로 만들어야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은행, 군산시에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웅택)은 지난 18일 군산시청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 전달식을 실시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북은행 이성란 부행장, 김동형 군산지역금융센터장, 군산시 강임준 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전달된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는 유동인구가 많고 시설환경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무료급식소 등에 설치될 예정이며, 비대면으로 체온 측정이 가능해 2차 감염을 예방하고 빠른 속도의 발열자 감지를 통해 방역 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상 기자



농협 남원시지부 농촌일손돕기 실시

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박노현)는 지난 18일 관내 춘향골농협(조합장 임승규), 농신보 남원권역센터(센터장 남우수), NH생명전북지역총국(총국장 이숙)과 금지면 멜론 농장에서 일손돕기를 추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코로나 19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였으며, 예년보다 긴 장마로 인한 폭우와 연이은 태풍복상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일손돕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4개 농협 관련 임직원 30여명은 멜론농가 멀칭 작업 및 마을 환경 정비에 구슬땀을 흘렸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반적으로 직접조리보다 반조리 또는 완전조리식품을 구매한다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김윤상 기자

추석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10% 특별할인·구매한도 상향

전북중기청, 오늘부터 29일까지 1인당 최대 100만원으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은 추석 명절을 맞아 21일부터 29일까지 9일 동안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시 할인율을 현재 5%에서 10%로 확대하고, 한도금액도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번 특별판매는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취해진 조치이며, 할인혜택과 함께 40% 전통시장 소득공제까지 활용한다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 등을 구입할 수 있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새마을금고 등 14개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안남우 청장은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석맞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과 상인들 모두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잘 지켜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힘써주시길”을 당부했다.

한편, 온누리상품권 관련 부정행위 신고는 전통시장통통 홈페이지(www.sjangtong.or.kr)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신고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추석맞이 ‘사랑의 쌀’ 이랍니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장기우 본부장은 지난 18일 이상우 전북도청지점장과 함께 전북도를 방문해 송하진 도지사, 서영숙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에

/김윤상 기자

‘JB카드와 정감넘치는 추석 보내시길’

전북은행, ‘다정다감 추석 명절 이벤트’ 내달 11일까지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웅택)이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JB카드 다정다감 추석 명절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지난 1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이벤트 응모고객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백화점, 슈퍼마켓 등 추석 명절임종에서 30만 원 이상 이용시 최대 1만원 모바일쿠폰 ▲KTx, SRT 건널 5만원 이상 이용시 최대 1만원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또

한 배달앱의 이용이 급증하는 트렌드에 맞춰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이용 시 2,000원의 배달료를 캐시백으로 제공한다.

더불어 주요 대형마트 선물세트 할인 행사도 진행된다.

온라인몰을 포함해 전국 이마트와 농협 하나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전점에서 진행되며, 인기 선물세트 구매시 결제 금액대별로 상품권을 증정하거나 최대 50%까지 할인

/김윤상 기자

중기 80% “화관법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연장 필요”

필요 추가 유예기간으로 ‘1년’ 이 39%로 가장 많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화관법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8곳(80.3%)이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한 추가 유예기간으로는 ‘1년(39.0%)’이 가장 많았고, ‘2년 이상(29.0%)’, ‘6개월(13.3%)’, ‘2년 미만(12.9%)’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0월부터 정기검사 시행 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절반인 51.7%만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48.3%)이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설비부지에 대한 비용 부담(49.7%), ▲대응 인력 부족(27.6%), ▲물리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준(18.6%), ▲명확한 기준을 모름(4.1%) 순으로 조사됐다.

시설 설치비용은 평균 3,790만원으로, 작년 7월 분회화 실시한 ‘화관법 시행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당시 평균 3,200만원 보다 약 500만원 더 높게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9%는 1억 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취급시설 정기검사 기준 중 가장 지키기 어려운 부분으로 ▲제조시

설 건축물의 내진설계(18.0%) ▲벽과 저장탱크, 저장탱크 간 0.5m 유지(14.0%) 등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화관법 이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대책으로는 ‘기준 완화 등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이 6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시 개정을 통한 취급시설 기준 업종별, 기업규모별 차등화(42.0%) ▲정기검사, 교육 등 태법과 중복 사항 통합(24.7%) 등으로 나타났다.

/김윤상 기자

하림, jtc ‘육자회담’

레시피 3종 PICK 이벤트

종합식품기업 (주)하림이 자연실록 공식 SNS 채널에서 ‘육자회담 레시피 3종 PICK’ 이벤트를 진행한다.

jtc 예능 프로그램 ‘육자회담’에 소개된 닭요리 레시피 3종(▲항아리 닭구이, ▲청송 닭불고기, ▲닭찜)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메뉴를 선택하는 이벤트다. 지난 17일 저녁에 방송된 jtc ‘육자회담-닭고기 특집’ 편에서는 3명의 출연자가 각각 자신만의 노하우로 닭고기 요리를 선보인 바 있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27일까지 진행된다.

/익산=정왕실 기자

100명 중 45명만 “차례 지낸다”

지난해보다 10% ↓... 농식품 선물비용 17만394원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올해 추석 농식품 구매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농식품 구매 의향 품목, 구매처, 지출 예상 금액 등을 분석한 결과를 지난 1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과 10월 이틀간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전국 소비자 패널 총 94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장거리 이동이 제한되면서 추석에 차례를 지낸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44.5%로 전년보다 10%p 감소했다. ‘추석을 가족끼리 보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절반이상(53.8%)을 차지했고, ‘친척들도 모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4%에 불과했다.

올해는 선물구매를 줄이거나 가족·지인 등에게 ‘추석 선물을 아예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소비자 비율이 전년보다 높았다. 추석 선물비용을 구매하는 데 평균 17만394원이 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일 선물을 안 하겠다’는 응답이 절반이상(51.1%)을 차지한 가운데 과일 대신 현금이나 상품권, 건감식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물용 농식품 구매 시 대형마트(37.6%)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답했고, 온라인(25.2%), 전통시장·전문점(9.9%)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구매가 일반화되면서 전년 대비 온라인 구매는 9.4%p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 이용은 9.4%p 감소했다.

추석 음식을 장만하는 데 필요한 농식품 구매 비용은 평균 19만5,2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떡은 구매한다는 소비자가 많은 반면, 육류·나물류·국탕류·김치류는 직접 조리한다는 소비자가 많았다.

전반적으로 직접조리보다 반조리 또는 완전조리식품을 구매한다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김윤상 기자